



▲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 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자동차

현대차그룹 미국 투자, Beyond EV

- ✓ 현대차그룹 (이하 HMG), 미국 BEV 및 모빌리티 투자 발표
(총 투자 규모 8.4조원 vs. 17년 기아차 인도공장 (30만대) 투자 규모 1.8조원)
- ✓ 업체 간 BEV 상품성 비교 및 현지 생산 계획 고려 시, 25년 미국 No.2 경쟁 전망
- ✓ BEV 모델의 B2C 판매뿐 아니라, 전세계 유일 로보택시 공급 계약인 Lyft와의 협업 전개 위해서도 현지 대량 양산 필요. Reuter 인터뷰 통해 총 생산 능력 확대 언급
- ✓ 현대차 · 기아 · 위아, 이번 투자의 직접적인 수혜 전망

Overweight

Top Picks

현대차(005380)	Buy	300,000원
기아(000270)	Buy	120,000원
현대위아(011210)	Buy	100,000원

마침내 눈을 뜬 미국 BEV 시장, 현대차그룹 25년 No.2 경쟁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는 중국 이상의 미국 내 BEV 생산과 판매이다. '20년 중국 BEV 판매는 130만대로 전세계 수요의 41%였다. 미국은 33만대로 10%에 불과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약 200조원의 정부 예산 지출이 결정됐다. 생산 재정지원, 판매 리베이트, 구매 인센티브,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이 포함된다. 최근 IHS는 '30년 미국 BEV 판매 비중 전망을 15%에서 20%로 상향했다. '20년 2% 대비 10배 성장이다.

누가 수혜를 누릴까? 경쟁력 있는 BEV 모델이 준비되어 있고, 현지 대량 양산 능력을 갖춘 업체의 선전이 유력하다. 현재 미국 내 BEV 생산설비를 보유한 업체는 Tesla, GM, Ford, Nissan 뿐이다. VW이 준비 중이나,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 외에는 현지 생산 진출 계획이 없다. 대부분 상품성 높은 BEV 모델의 준비가 부재하다. 25년까지 내연기관 파생 모델이 아닌 다종의 BEV 전용 모델 라인업을 준비한 업체는, HMG, GM, VW 뿐이다.

HMG의 투자가 결정됐다. BEV 생산과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해 8.4조원이 투입된다. 20년 BEV 판매는 Tesla 20.6만대, GM 2.1만대, VW 1.2만대, Renault-Nissan 1.0만대, HMG 0.7만대, BMW 0.2만대 순이었다. 사실상 Tesla 독식이다. 오래된 단일 모델을 판매 중인 Renault-Nissan (Leaf), BMW (i3)는 판매가 급감 중이기에 경쟁의 의미가 없다. 대표 모델의 상품성에서 GM, VW 대비 HMG의 경쟁우위가 확인된다. GM EUV (Premier 기준) 가격 \$38,495/ 주행거리 402km, VW ID.4 (Pro S 기준) 가격 \$45,690/ 주행거리 418km, 현대차 IONIQ5 (LR 기준) 가격 \$45,000/ 주행거리 467km (모두 Car and Driver 공개 자료 기준). 22년 이후 현지 대량 생산을 통해, HMG의 미국 BEV 시장 No.2 확보 가능성이 높다.

모빌리티 시장의 시작과 끝 디바이스, 전세계 유일 협력 전개 업체 현대차

'25년 전 BEV의 진화가 예상된다. 친환경을 넘어 자율주행 AI 플랫폼의 전력 공급 원으로서의 중요성이 강화된다. 낮은 Core Efficiency의 BEV, Edge-to-Cloud Computing, 융합제어 Architecture, FOTA가 갖춰진 디바이스는 AI 강화를 위한 데이터 수집 도구이자, 로보택시 기반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전개 수단이다. 현재 모든 역량을 구축한 업체는 독자 노선을 걷고 있는 Tesla 뿐이다. 모빌리티 시장 진입을 원하는 Big Tech, 승차 공유 업체들은 디바이스 확보 의지를 피력 중이다.

Non-Tesla 중 기술 전반을 준비 중인 업체도 HMG, VW, GM 뿐이다. HMG, VW 이 GM 대비 약 2년 앞서 있다. VW은 Architecture 와 FOTA 완성이 지속 연기되고 있다. HMG는 2H21 Architecture 와 FOTA 완성, 2H22 AP (Edge Computer)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GM은 1H23 중 낮은 Core Efficiency 의 BEV Platform 이 등장한다.

HMG 가 VW 을 제치고 디바이스 기술 실현에 앞서갈지 아니면 VW 처럼 지연될지, 외부의 시각에서 미리 확인할 방법은 없다. 다만, 기술 실현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업 전개에 주목한다. 디바이스 구축의 기술적 진입 장벽은 높다. 이를 원하는 잠재적 시장 참여자들은 준비 중인 업체들을 찾아가 기술 진전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가장 빠른 시점에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업체와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맺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전세계 완성차 업체 중 디바이스 공급 계약을 전개한 유일한 업체는 현대차다. 지난 4월 Lyft 와 자율주행 BEV 로 진화할 IONIQ5 로보택시를 23년부터 공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하는 바는 세 가지이다. 1) 디바이스를 위한 기술 완성 가능성성이 경쟁 업체 중 가장 빠르다고 판단된다. 2) B2C 판매가 아닌 B2B 디바이스 공급을 위한 별도의 생산 CAPA 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3) 디바이스 공급 역량을 확보한 업체로서의 높은 협상력을 바탕으로 현재 Lyft 가 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Commission 의 일부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제조에서 서비스로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이다.

현대 · 기아 · 위아, HMG 미국 투자의 직접 수혜 전망

한국 시간 금일 새벽, 현대차 COO (Chief Operating Officer)이자 북미 CEO 인 Jose Munoz 와 기아 북미 CEO 인 Sean Yoon 이 HMG 미국 투자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Reuter 는 BEV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공장 증설을 검토 중이라는 인터뷰를 보도했다. 다만 세부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BEV 생산 능력 확대를 중심으로 자율주행, 로보틱스, UAM, 수소발전 등이 언급되고 있다. 현대 · 기아를 필두로 수 많은 부품업체들의 북미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동반 진출 부품 업체의 선정이 공개되지 않은 지금, 확실한 수혜 업체는 현대차, 기아, 위아라고 판단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경쟁력 높은 BEV 모델들의 판매 성장과 모빌리티 협업 전개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위아는 두 가지 성장 근거가 존재한다. 먼저 BEV 생산 설비 확대에 따른 FA 장비 공급 증가 및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 BEV 생산 시설의 양산 방식이 Conveyor 인지 Cell 인지에 따라 인식 가능 매출 규모 차이가 존재하나,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기계 사업의 성장 전환 기재로 작동할 것이다. 다음은 로보틱스 영역이다. 지난 5월 9일, HMG 는 물류로봇 사업 진출을 발표했다. AGV (Automated Guided Vehicle, 무인 운반 차량) 로봇의 공장 및 물류센터 활용, 무인주차 서비스 제공 사업이 시작점이며, 장기적으로 라스트 마일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위아는 AGV 로봇을 현대차와 공동 개발했다. 로봇 양산을 위한 주요 제품을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자동차-로봇-UAM 의 연결을 통한 멀티 디바이스-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전개는 미국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미국 투자에 따른 BEV 생산 설비 증가와 AGV 로봇 제작 참여를 통해 직접적 수혜를 누릴 예정이다.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

투자등급 관련사항 (2019년 9월 16일부터 기준 변경 시행)

기업	향후 12개월간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증가대비 3등급	Buy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Hold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이상 ~ +20% 미만
	Sell	추천기준일 직전 1개월간 평균증가대비 -20% 미만
산업	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 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	
추천기준일 시장지수대비 3등급	Overweight (비중확대) Neutral (중립) Underweight (비중축소)	

투자의견 비율

투자의견	비율
매수	83.8%
중립	16.3%
매도	0.0%
2021년 3월 31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공표한 최근일 투자등급의 비율	

현대차 (005380) 투자등급변경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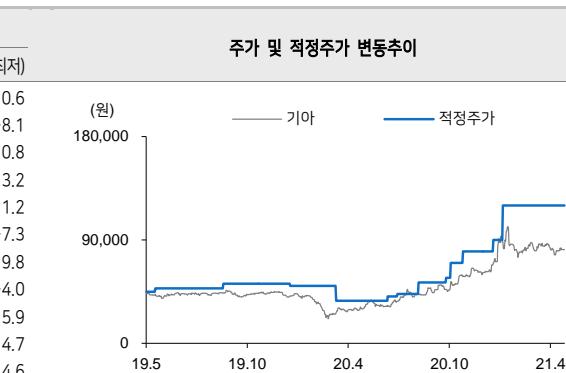
* 적정주가 대상시점 1년이며, 투자등급변경 그래프는 수정주가로 작성됨

변경일	자료형식	투자의견	적정주가 (원)	담당자	괴리율(%)*		주가 및 적정주가 변동추이
					평균	최고(최저)	
2019.04.24	기업브리프	Buy	165,000	김준성	-17.3	-13.0	
2019.07.08	산업브리프	Buy	170,000	김준성	-23.6	-17.9	
2019.09.18	산업분석	Buy	175,000	김준성	-27.2	-23.1	
2019.10.25	기업브리프	Buy	165,000	김준성	-26.5	-17.6	
2020.03.16	기업브리프	Buy	145,000	김준성	-33.3	-14.1	
2020.07.24	산업브리프	Buy	165,000	김준성	-9.0	8.5	
2020.08.31	산업분석	Buy	220,000	김준성	-20.2	-15.0	
2020.10.27	산업브리프	Buy	240,000	김준성	-27.8	-24.0	
2020.11.18	산업분석	Buy	250,000	김준성	-23.8	-1.6	
2021.01.11	산업브리프	Buy	300,000	김준성	-	-	

기아 (000270) 투자등급변경 내용

* 적정주가 대상시점 1년이며, 투자등급변경 그래프는 수정주가로 작성됨

변경일	자료형식	투자의견	적정주가 (원)	담당자	과리율(%)*		주가 및 적정주가 변동추이
					평균	최고(최저)	
2019.04.25	기업브리프	Trading Buy	45,000	김준성	-3.9	0.6	
2019.05.20	기업브리프	Trading Buy	48,000	김준성	-11.0	-8.1	
2019.09.18	산업분석	Buy	52,000	김준성	-16.9	-10.8	
2020.01.15	기업브리프	Buy	50,000	김준성	-29.8	-13.2	
2020.04.06	산업분석	Buy	37,000	김준성	-14.7	1.2	
2020.07.07	기업브리프	Buy	41,000	김준성	-15.2	-7.3	
2020.07.24	기업브리프	Buy	43,000	김준성	-2.7	9.8	
2020.08.31	산업분석	Buy	53,000	김준성	-13.3	-4.0	
2020.10.19	기업브리프	Buy	57,000	김준성	-18.6	-15.9	
2020.10.27	기업브리프	Buy	70,000	김준성	-22.4	-14.7	
2020.11.18	산업분석	Buy	80,000	김준성	-22.8	-14.6	
2021.01.11	기업브리프	Buy	90,000	김준성	-10.1	3.7	
2021.01.28	기업브리프	Buy	120,000	김준성	-	-	

**현대위아 (011210) 투자등급변경 내용**

* 적정주가 대상시점 1년이며, 투자등급변경 그래프는 수정주가로 작성됨

변경일	자료형식	투자의견	적정주가 (원)	담당자	과리율(%)*		주가 및 적정주가 변동추이
					평균	최고(최저)	
2019.04.18	산업브리프	Buy	47,000	김준성	-1.6	7.4	
2019.05.27	산업분석	Trading Buy	47,000	김준성	-2.4	9.4	
2019.07.16	기업브리프	Trading Buy	52,000	김준성	-10.7	-0.8	
2019.11.12	산업분석	Buy	58,000	김준성	-29.4	-4.7	
2020.05.26	산업분석	Buy	50,000	김준성	-25.2	-18.2	
2020.07.27	기업브리프	Buy	45,000	김준성	0.0	90.9	
2021.01.11	기업브리프	Hold	60,000	김준성	34.4	40.5	
2021.01.18	산업브리프	Buy	100,000	김준성	-	-	

